“日정부 사죄하라”… 故김복득 추모물결

조계종 사노위, 7월 4일 1342차 정기 수요집회 개최

일본정부 공개 참회 및 2015년 합의 무효화 촉구

“굴욕의 역사 잊어선 안돼”

글=김지원 수습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집전을 맡은 법상 스님이 故김복득 할머니 및 희생자 합동추모 예불을 하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故김복득 할머니를 추모하고, 2015 한일합의 무효화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는 7월 4일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서 ‘제134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개최하고, 지난 1일 별세한 故김복득 피해자 추모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91)를 비롯, 조계종 스님, 서울여대 ‘평화나비’ 학생 등 4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시위는 △故김복득 할머니 및 희생자 합동 예불 △‘바위처럼’ 낭송 △인사말 △경과보고 △추모 노래공연 △자유발언 및 추모 연주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사노위 활동위원 유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과 우리 정부는 ‘해야 할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했다. 2015년 일방적인 한일 합의가 이에 해당한다”며 “합의 이후 일본군 성노예 제 문제는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 일본은 할머니들을 찾아와 직접 사과드리고, 무엇을 해드릴지 묻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해야한다”고 말했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경과보고서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공동의 책임’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모두는 반세기 동안 침묵, 불처벌, 방관했다. 때문에 가해사실은 공고해졌고 2, 3차 피해마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15 한일합의는 잘못됐다’는 메시지는 해당 합의를 파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또 한 분 떠나보낸 할머니들이 평생 이루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외치고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계종 사회국장 혜공 스님이 대표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참가 대중은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 공개 참회할 것 △일본 · 한국 정부는 2015 한일합의를 전면 무효화 선언할 것 △한국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조속 해산하고 보상금 10억엔을 즉각 반환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소위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1년이 지나가는 현재까지도 2015년 굴욕적인 한일 합의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며 “전 국민은 남북 화해, 평화의 소중함만큼 할머니들의 인권을 되찾는 일도 바란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집회에선 기획관광으로 10명의 일본인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일본 여행사 ‘다비시스템’은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역사를 자국민에 알리기 위해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직원 아오키 쿠미코(60) 씨는 “이번이 첫 모집이고 오늘 시위 참여가 기획관광 첫 일정이다. 많은 일본인들은 역사교육의 부재로 성노예 피해사실에 대해 잘 모른다”며 “기획관광을 통해 자국민들도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 팀에 속한 하루키 치에 씨는 자유발언에도 나섰다. 그는 “오늘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멀리 일본 삿포로서 한국에 오게 됐다”며 “일본 정부는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약간의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는 옳지 않다. 할머니들이 진심으로 웃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화쟁 가치 ‘확산’… 문제해결은 ‘미흡’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는 7월 5일 서울 전법회관서 ‘8년의 발자취, 나아갈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8년간 펼친 20여개의 사업들을 되돌아봤다. 발제는 정웅기 화쟁위원이 맡았다.

화쟁위는 첫 현안이었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종교가 사회적 대화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로, 불교의 사회적 실천 영역을 개척한 의미가 담겼다고 봤다. 다만 정부와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로 중재노력이 무산되고,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점은 한계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쌍용자동차 노사갈등(2012) △철도노사 갈등(2013) △지리산 문정댐(2015) 등 굵직한 사건을 다시 조명하며, 화쟁의 가치 확산에 의미를 뒀다. 하지만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화쟁위원회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더 나은 화쟁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호섭 기자

“미투 고발, 불교 위협한다는 인식 바꿔야”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종교계 미투 토론회서 주장



“불교계는 피해자 이야기를 듣고자하는 자세가 안 돼 있다. 특히 피해를 드러내는 것이 누군가를 해치고, 업을 짓고, 공동체를 흔드는 일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사진〉은 7월 5일, 각 종교계 미투운동의 성과와 한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자리는 ‘개혁을 위한 종교인 네트워크’가 주최한 토론회로, ‘미투 · 위드유 너머,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란 주제 아래 진행됐다.

김 소장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불교계 미투’를 주제로 한 발제서 불교 내 성폭력의 특성을 분석했다. 그는 “독신 계율을 중시하는 종단에서 성문제에 연루된 승려의 경우, ‘은처승’이란 명칭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특징이 있다”며 “처(妻)의 유무로 구분하는 명칭 자체가 한국불교가 얼마나 남성중심적 시각이 깊이 내면화돼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성폭력 문제가 범법행위 아닌 은처 문제로 치부되는 불교계 풍토를 지적하면서 “문제의 초점에서 폭력은 사라지고 숨겨둔 부인이 있는가의 문제로 전환돼버린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미비한 처벌과 법적 체계 부실’을 언급하며 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한 대안으로 성평등위원회 설립을 제시하고 △불교계 미투운동 전담 △왜곡된 교리를 성평등 관점서 재해석 △대중 법문의 방향 및 내용 제시 △승려대상 성평등 교육 등을 수행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서 김경호 지지협동조합 이사장은 앞서 한 발제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 부분에 다른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가해 승려의 승적을 무조건 박탈하는 내용과 관련, 그는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배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자비문중의 정신을 살리는 방안으로 참회원 설립이 제기돼왔다.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구제를 전제로, 승려로서의 권리는 제한하고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불교, 가톨릭, 개신교 각 종교별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가톨릭에선 김선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기독교에선 채수지 기독교여성상담소장이 발제했다. 이외에도 이미영 가톨릭평론 편집장, 류상태 목사(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등이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김지원 수습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The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다 ⑪

오문옥 부산의료원 호스피스팀 회장

“삶 · 죽음 평등함, 모두에게 알려요”


오문옥 회장(사진 왼쪽 세번째)과 팀원들의 모습.

2005년 5월 관음사 환희복지대학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다른 불자를 본 오문옥 씨의 가슴은 격하게 뛰기 시작했다.

부산 홍제사에 다니던 그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 학업 성취를 위한 기도에만 관심이 있었다. 어린 아이들이 죽음을 앞두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 그녀는 호스피스야말로 불제자로서 이어가야 할 수행이자 삶이라고 생각했다.

환희복지대 호스피스과정 14기로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지 3개월 만에 오 씨는 부산의료원 호스피스팀으로 활동하게 됐다. 오 씨는 지난해부터는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5월부터 봉사를 하고 있다.

“사실 호스피스 교육은 말기암환자 등 죽음과 가까운 이들을 돌보는 것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젊었어요. 50대 초만 하더라도 그냥 봉사라고만 생각했지요. 시키는 것만 하다 점점 세월이 가면서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픈 환자들을 대할 때 감사함과 죽음 앞에 모든 생명은 공평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 씨는 많은 이들에게 격려를 불어넣어주고 있다. 오 씨는 7년전 한 환자와의 사연을 소개했다.

“당시 남편과 별거 상태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둔 엄마를 만났습니다. 일반병동에 있는 환자를 특별케어 하게 됐죠. 그런데 그분은 호스피스 봉사를 받기를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세상을 살면서 봉사를 한 게 없어 받을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기적처럼 나으면 봉사의 삶을 살고, 가시더라도 내생에 봉사의 삶을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오 씨는 그녀를 도와주며 오히려 봉사의 소중함을 느꼈다. 마지막 49재를 하고 싶어하는 그녀에게 법당 스님에게 부탁해 임종기도와 재까지 치르게 도와줬다. 앞으로 그녀는 호스피스 봉사를 하며 보다 많은 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그리고 죽음 이후 내생에 대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정말 40대만 하더라도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합니다. 검진에서 말기로 나와서 갑자기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부처님 법으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어쩌면 행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팔순 어머니가 4~50대 자녀의 임종을 보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경우 함께 연락해주고 마지막 가족으로서의 정을 나누게 하는데서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불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호스피스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말기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생명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불교 호스피스 단체로서 2009년 창립됐다. 각 지역 · 지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총괄하며 조계종 승려연수 일환으로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를 모집 중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승려연수 30점 인증

①임상과 수행의 만남 ②환자의 심리와 욕구 ③영적 대화기법 ④죽음 현상들에 대한 직관 ⑤임종간호와 영적돌봄의 실제 ⑥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⑦불교적 임종의식과 입관의식 ⑧임종시점에서 西歸直指의 방법론

- **교 육 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8530 / www.kbha.kr

